

## 하선아! 하나님의 뜻이란다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 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 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개역, 누가복음 22:39~46]

**아** 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갑자기 넘어졌을 때 엄마의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를 안고 호들갑을 떨니다. “왜 조심하지 않고 그랬냐? 어디 다친 데 없느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돌아보며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는 무덤덤해요. 그냥 “일어나!” 그러면서 쳐다보기만 합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엄마와 무덤덤한 엄마 중에 어느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생각할 것 없습니다. 둘 다 진짜 엄마입니다. 그러면 어느 엄마가 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애가 넘어져서 다치면 애를 끌어안고 호들갑을 떨고 난리법석을 떠는 엄마가 더 잘 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이를 더 감정적으로 대할 뿐이죠. 넘어진 아이를 향해 “일어나!” 하면서 말만하고 거들어 주지 않는 엄마도 여전히 친엄마입니다. 단지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고, 일으켜 주고 싶지만 스스로 일어나라는 뜻으로 기다리는 것이 삼자가 보기에는 무덤덤해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속까지 무덤덤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엄마는 아이를 좀 이치적으로 사랑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가 잘 하고 못 하고의 차이는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토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틀림없이 애가 따라 나설 것 같아서 미리 단도리를 했답니다. “너, 오늘 이것 이것 다 해 놓으면 교회 갈 때 데려간다. 안 해 놓으면 안 데려 간다.” 두 시간 뒤에 “다 했니?” 하고 물으니 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다 해 놓은 아이는 다 큰 아이입니다.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해서 “너, 하라 한 대로 안 했으니 안 데려 간다” 하는 순간부터 애가 울고불고 떼를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손을 짹짹 빌면서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온 동네가 떠내려가도록 우는데도 엄마가 독한 마음을 먹고 떼어놓고 내려와서 차를 타 버렸답니다.

차 타고 한참 오다가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울어대던 애가 염려되어서 전화했지요. 전화하니까 애는 깨끗이 잊어먹고 잘 있더라고요. 전화통에 대고 하는 얘기가 “엄마는 딸이 그렇게 우는데도 마음이 안 아파? 어떻게 날 버려두고 그냥 갈 수 있어?” 말하자면 작전상 울었다는 거죠. 지금 누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지 차 안에서 전화는 왜 해요? 걸으려는 매정하고 냉정하지만 사실은 불안한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 어떤 경우에 걸으려는 태연하지만 속으로는 애간장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 제 딸 애가 일찍 깨워달라고 해서 깨웠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니까 “금새 공부 다 했다.” 하고 또 누워 있더라고요. 빈둥거리고 있더니 한참 후에 “아빠 오늘 늦었으니까 차 좀 태워줘.” 하는 거 있죠. 저도 좀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네가 누워서 뒤척거리다가 늦었으니 네가 책임져! 그런 경우는 못 태워준다.” 결국은 그냥 보냈는데 집사람한테 야단을 좀 맞았죠.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매정할 수 있는냐?”는 거죠. 아무 말 안 하려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안 태워주는 나는 마음이 편한 줄 알아?”

개가 오후에 집에 올 때까지 난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저 녀석이 아빠한테 빠진 거나 아닐까? 성질이나 부리지 않을까? 오후에 집에 들어올 때 애 표정부부터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는 깨끗이 잊어먹고 딴소리하면서 들어오는 것 있죠. 그때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태워 달라는 것 안 태워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안 태워줄 때는 제 마음도 편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자기 처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럴 땐 태워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안 태우는 게 더 힘들어요.

최근에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애썼는데 하선이 가 또 수술을 해야 하고 한쪽 안구를 적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도 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자인 제가 그럴 것 같으면 부모의 아픔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힘이 듭니다. 또, 신대원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더군요.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도 후진국가란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사리판단이 분명했거나, 조금만 용감했거나, 조금만 책임감이 있었다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어떻게 저렇게 크게 벌어질 수 있었느냐는 생각에 화가 난다고 그럴까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튿날 신문을 보다가 더 가슴 아픈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방에 잘나지도 못한 제 얼굴이 크게 그려진 초상화가 있습니다. 실물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아이가 계대 미대 졸업식에 가다가 사라진 거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을 두고 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그 초상화는 다른 액자로 가려버렸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예배 마치고 대학 동문들이 몇 명 모여서 “수요일 저녁예배 후에 기도라도 하자” 하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데 계시는 어느 동문 교수님의 큰 딸이 초등학교생인데 3년 전에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1년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때 그 아버지가 치료방법을 이리저리 연구하고 찾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뼈를 잘라내서 태워가지고 그걸 다시 원 위치에 끼워 넣어서 치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 둘째 애가 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동문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모였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더니 월요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애 둘을 그렇게 잃어버린 선배의 마음이 어떠할는지...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답니다.

그런 참에 저희 형제가 5남 1녀인데 기도해야 할만한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바로 밑의 동생이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위암인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본인으로서 조기발견이라서 괜찮다는데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햇수는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때에 그 부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아야겠지요.” 하더니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 어떻게 신랑을 데려갈 수 있느냐?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만 있어도 괜찮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아야겠지요.”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었어요.

위로할 말이 없었지만 그 때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남편을 그렇게 데려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아픈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픔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은 가신 분의 몫까지 다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계시는데 두어 주 전에 집사님이 거길 갔다 왔어요. 몇 년 동안 소식도, 사는 모습도 잘 몰라서 궁금했는데 다녀와서 하는 말이 “홍 집사님이 그 때 위로하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편 복은 안 주셨지만 돈 복은 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IMF시절, 그 어렵던 시절에 하는 일 마다 잘 되고 남들은 안된다 안된다 하던 시절에 매출이 배로 올라서 한마디로 돈을 감당 못할 지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솔깃한 분 계시요? 남편 복이 낫습니까? 돈 복이 낫습니까? 빨리 대답하는 것이 점수 딸 기회인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하고 이런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픔을 당하여서 눈물짓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이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우시진 않았습니까마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단순한 친구의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 왜 이런 죽음이라는 아픔이 오게 되었는지,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참아야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주 큰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신 말씀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했는데 대단한 신앙고백이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 의도적으로 나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하면서 이 아픔을 “하나님의 뜻이니 참아야겠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신앙고백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닐 수도 있음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뜻은 닦쳐오는 잔을 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어려워했던 것이 무엇에 대한 고통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구구절절이 설명하기도 합니다마는 설명을 이해하기조차 어렵더군요.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겠느냐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이 고통을 견디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큼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이 고통,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는 육체의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아 본 사람만이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데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피해가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피땀 흘려 행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고통 앞에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힘들었고 기도가 간절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을까요? 천사가 도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힘을 더해 주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부자지간에 왜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이 고통은 하나님 자신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또 이 잔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다는 이 마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겼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사람이 깨버린 겁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깨버렸단 말입니다.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땅은 저주를 받고 온갖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 불행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온갖 수고와 병과 전쟁이 끊임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간의 뜻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뜻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인간의 실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구지하철 참사를 보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을 위로하거나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희생을 당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소임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후진적이고 온갖 부패, 무책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총집합 된 것,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었겠느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실수요,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무능함이 그 원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암이란 병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예전에 대흥교회에서 저희 또래끼리 모여서 왜 이렇게 암이 많이 생기느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주원인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작전을 하나 쓰자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했는데 제일 좋은 의견은 “아무에게도 소식을 알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사라지자. 하루만이라도 집이고 교회고 아무데도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깨끗하게 사라져서 어디 산에 가 가지고 하루쯤 있다가 내려오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찬성했습니다. “한 번 그래 보자. 참 재미있겠다.” 다 좋아했는데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실행할 용기까지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암이란 병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정말 드물고 희귀한 사례다’면서 감탄(?)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이 문명의 발달이 어찌하면 이런 병의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많이 생겨나는 원인 제공자도 여전히 인간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치료할 수 있는데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쳐 버리고, 치료하지 못하는 이것도 어찌하면 인간의 책임일지 모릅니다. 에이즈가 왜 그렇게 온 세계적으로 말썽이 됩니까? 이 병이 번창하게 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부 인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도저히 치료되지 않는 강한 내성을 키우는 병원균들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병원균들을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 것도 여전히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감기를 우습게 알았죠. 그런데 요즘은 우습게 볼 수 있는 병이 전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인류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전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데 쓰는 돈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데 돈을 썼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엉뚱한 곳에 가서 쏟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불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병원을 세우고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허비하는데 쓰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한 번 보세요. 정말 인류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허비하는 돈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시내 한번 나가 보세요. 병원은 군데군데 있는지 모르지만 여관이고 술집은 빈틈없이 들어차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여관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집 놔두고 왜 저기 가서 자냐?” 누가 그러대요. “출장가면 저런데 가서 자야지.” 그러더라구요. 출

장간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시내 한복판에 무슨 여관이 그렇게 많은지 왜 집 놔두고 다른데 가서 자요?

사람들이 돈을 정말 써야 할 곳에 쓰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병들이 다 정복되고도 남았을텐데 그런 곳에 투자 않고 엉뚱한 곳에 다 허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병들어 좀 더 일찍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로 저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참으셔야지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이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인류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병을 고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다 하여도 그런 노력으로 해서 이 세상이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이 낫기 위해서, 이 불행한 세상에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 불행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이 떠남으로서 발생되었고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오셔서 이 험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어떻게 사람에게 의해서 깨어질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어버릴 수 있었는지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너살 먹은 갓난아이가 다 큰 어른을 울릴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정말 사랑할 때는 갓난아이가 부모를 울릴 수 있어요. 이주영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왔다가 어떻게 좀 늦게 집에 갔더니 애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덩치가 커다란 윤 집사님은 위층으로 거의 울부짖다시피 애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다니더라고요. 금방 찾았길래 망정이지 바로 못 찾아내면 다 큰 어른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쏟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겁니다. 그랬기에 아름다운 에덴동산은 다 망쳐졌고 우리는 거기서 쫓겨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더라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더 낮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하고 불행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시금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불행이 우리가 당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행, 이 아픔을 중지시키고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었을까요? 너무 쓸데없는 고민합니까? 차라리 이런 고민이 나아요. 어느 분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누가 먼저 이것을 제안했을까? 두 분은 같은 분이예요. 같은 분 즉, 한 분이예요. 한 분이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하나님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들거나 혼을 줌 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면 아이가 매 맞아서 울고 아니면 고집을 피운다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더 아픈 사람은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매를 들고 야단을 쳐본 사람만이 압니다. 온 동네가 떠내려가도록 울고불고 하는 아이를 냉정하게 뿌리치고 내려온 엄마가 내려오면서 전화는 왜 해요?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정작 아이는 열심히 울어대다가 엄마가 간 것을 보고는 더 울어봐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딱 그쳐 버립니다.

어린아이들도 비빌 언덕 보아가면서 비비는 겁니다. 부모가 냉정하게 자르기 시작하면 아이는 더 이상 비비고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정작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더 울어봐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놀고 있는데 그때까지 마음 아픈 건 그 아이를 떼어놓고 나가는 엄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편치 않게 만든 것이 인간들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고통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이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가 문제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인간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 당하며 힘들어 하고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이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께서 먼저 겪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못 견뎌하며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이 불행한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싶거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불행한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아픔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효자제일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는 결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깨끗이 순복하겠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 이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아주 좋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이런 세상이 빨리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이 세상을 빠르게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을 먼저 당하셨음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의 장난입니까? 하나님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마귀의 장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마귀의 짓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욥을 응원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마귀의 장난이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아 하나님께서 아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울의 정신나간 짓입니까? 사울에게 쫓겼던 것이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훈련이 되고 나중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튼튼한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측면으로는 사울이 지금 정신이 나가서 다윗을 죽이자고 쫓아다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냐는 거죠. 이게 누구의 뜻이나, 원인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탄의 짓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마귀가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이 건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 짓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귀한 사역자로 세우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혀 본다면 베드로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누구의 실수냐 이런 것보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 마귀의 장난짓,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연 집사님께서 하선이 수술을 끝내고 남긴 글에 “하나님께서 하선이 한 쪽 눈을 가져가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김수연 집사님의 이 고백을 부정하고 싶거나 그 아름다운 고백에 흠집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된다면 이보다 더 나은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도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아픔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에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하고도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칫하면 마치 체념인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니 그런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전에 왜 이런 불행이 생겨났는지를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선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란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에 그 결과로 생겨나는 가슴 아픈 현실이란다. 우리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더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해서 이런 불행한 결과가 왔단다. 그렇지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불행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단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고통 모든 슬픔이 없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나은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픔을 겪는 김수연 집사님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와서 겨우 2년 동안 계시다 가셨지만 믿는 신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모범을 참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을 겪을지 모릅니다.

또 하선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시험이 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꼭 한 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설교 한편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 버려서 조금 탈진하다시피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드려야 할 말씀이 참으로 많지만 절제하고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때때로 자녀의 아픔을 도와주기보다 바라보기만 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 일들도 물러서서 그냥 바라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방이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을 누가 지켜보다가 하도 애처로워서 껍질을 찢고 나방을 꺼내어 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나방이 날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쓰는 동안에 날개에 체액이 퍼지고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이 찢고 도와줬더니 접은 날개가 퍼지지 않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날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 가슴이 아파도 가만히 놔두고 봐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불쌍하다고 도와주면 안된다는 뜻이죠.

마라톤 선수가 풀 코스를 다 뛰고 마지막 10m쯤 앞에서 기진해서 넘어졌습니다. 일어날 힘은 없고 겨우깁니다. 가서 도와주면 됩니까?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고향을 지르지만 가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가서 몸에 손을 대고 일으키는 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고난은 물거품이 됩니다. 실격으로 처리됩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일어서라고 온 힘을 다 해서 고향을 지르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은 기어서 가든지 굴러서 가든지 선수 자신이 가야 합니다. 안타깝다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깁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 이 아픔이 우리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한 아픔을 겪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이 아픔에서 잘 이겨내도록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응원단장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을 내가 먼저 당했고, 내가 먼저 겪었고, 내가 먼저 이겼단 말입니다. 견뎌내라고 하나님께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겻세마네 동산에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크고 더 큰 아픔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덮쳐 오는 이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의 작은 아픔을 잘 견디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하선이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